‘기차마을’ 곡성 관광지도 바꾼다

‘점형 관광’ 탈피 섬진강·보성강변 연계 ‘선형 수변 관광벨트’ 구축

곡성군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관광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했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로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 ‘또 오고 싶은 곡성’, ‘머물고 싶은 곡성’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의 ‘점형 관광’에서 탈피해 섬진강·보성강변을 잇는 수변 관광벨트를 새롭게 구축, ‘선형 관광’으로의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길’을 따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물길, 철길, 숲길 등에 스토리를 부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섬진강변에는 국도 18호선을 따라 테마 길을 조성하는 등 수변 관광 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강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증기기관차 정차역에 특색을 부여한다.

기차마을역에는 증기기관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침곡역은 기차 카페와 가족 놀이공간을, 송정역에는 간이역사와 산책로·포토존을, 이정역에는 야간조명 등을 조성한다.

기존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의 운행 구간을 분리해 섬진강을 따라 압록유원지까지 연결거리를 확장했다.

섬진강, 대황강, 압록을 잇는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압록상상스쿨 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과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 등은 이미 완료했다.

여기에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 자원 조성, 봉두산권 힐링 클러스터 조성,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도 추진한다.

연간 300만명이 모여드는 곡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기차마을의 도약을 위해 기차, 동물, 요술, 드림 등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한다.

곡성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관광 콘텐츠도 확충한다.

1억원 예산을 투입해 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관광 키오스크 기기도 3대 도입한다.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와 관광상품 운영자 등에게 인센티브와 연대할인도 제공한다.

곡성군이 섬진강과 보성강변을 잇는 수변 관광벨트를 새롭게 구축한 ‘선형 관광’으로 개편했다. 사진은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곡성군 제공〉

최근에는 곡성 주변 구례, 광양, 하동 등과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모빌리티·스마트 관광 플랫폼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계획의 첫 단추가 지자체별 관광 거점 조성”이라며 “관광 침체 시기이지만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지리산정원 솔씨 랜드마크 조성

소나무숲 활용 휴식·힐링의 ‘숲정원’ 국내 첫 추진

솔씨 상징조형물.

구례군이 ‘지리산 숲 정원’ 조성 사업의 시작으로 소나무 씨앗을 주제로 한 ‘솔씨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광의면 지리산정원에 지리산의 자연과 구례의 문화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숲 정원’을 조성한다.

구례의 하늘을 품은 ‘하늘 정원’, 밤하늘 별빛을 수놓을 ‘별빛 숲 정원’, 군민 화합을 상징하는 ‘어울림 정원’, 오랜 시간의 기억을 되살려줄 ‘와일드 정원’, 지리산정원의 숲을 나만의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프라이빗 정원’ 등 5개 주제로 정원으로 꾸민다.

내년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한다.

구례군은 이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자 지리산정원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특화한 ‘솔씨(소나무씨앗) 상징조형물’ 제작·설치했다.

이 작품은 솔방울 안의 작은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생명의 싹을 틔우려는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지리산정원에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속삭임을 씨앗에 담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의 솔방울은 희망과 행운을 상징하고 가정의 행복을 의미해 고대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안부를 가족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바티칸 박물관의 피나의 정원, 즉 “솔방울 정원”의 상징인 솔방울 조형물은 생명의 씨앗을 가득 머금은 탄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지금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정원에 자리잡은 솔씨 상징조형물이 ‘지리산 숲 정원’의 탄생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새로운 정원문화의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시민에 개방

원도심 광장 조성 완료…소통·직접 민주주의 거점 공간 기대

순천시가 옛 읍성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추진한 ‘남문터 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순천시는 원도심인 중앙로 일원에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조성 사업을 마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순천 원도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순천만국가정원에 상응하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원도심에 광장을 계획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원도심 중심부 1만789㎡ 부지에 지상 2층~지하 3층 8499㎡ 규모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을 조성했다.

순천시 최초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설계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의 지상 1층은 연자루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신연자루(306㎡)와 야외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파빌리온(210㎡), 상시 개방하는 도시정원 및 쉼터(6911㎡) 등으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순천 관광지와 원도심 여행자 플랫폼인 관광센터(182㎡), 여행자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실(67㎡), 순천부읍성과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175㎡)과 기획전시실(163㎡), 교육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204㎡) 등으로 꾸몄다.

또 시민들의 소통과 직접민주주의의 거점이 될 광장(1378㎡),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302㎡) 등이 들어선다.

지하 2층은 주차장 152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 3층은 지하상가 씨내몰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순천시는 남문터 광장의 도로, 주차장, 광장, 정원 등은 지난 9일부터 개방했다. 전시공간 등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이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남문터 광장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인근 상인회, 주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며 “남문터 광장이 순천부읍성의 역사성을 이어받아 원도심의 거점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소통·지역공동체 활동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산후조리비 최대 80% 지원

고흥군, 다양한 출산정책 시행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과 이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3년간 14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이 이상 돌맞이 축하금, 쌍둥이 행복축하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 축복꾸러미와 고흥사랑상품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며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자판기서 책 나와요”

여수시 ‘스마트도서관’ 개관

여수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청사에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청 1층 후문 로비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은 2017년 국동 롯데마트 365도서관을 시작으로 이순신도서관 북 드라이브에 이어 세 번째다.

신간 및 베스트셀러 200권을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으며, 여수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 5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설치했다.

자판기 형태로 본체와 적재함 등 2개로 나눠 최신 IT기술(RFID 센서·모바일 등)을 통한 지능화 및 미래지향적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대출과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책 제목이나 저자로 도서를 검색,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터치한 후 회원증을 인식하면 자판기처럼 책이 나온다. 반납할 때는 회원증 인식 없이 책의 RFID 코드를 인식시킨 후 해당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된다.

도서반납이 연체되면 해당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또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수 없고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